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5
국어의
변천

고전문법

[13년 3월 학평 B형 16번]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초성자]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ㄱ	ㅋ	ㅇ
혓소리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ㅁ	ㅂ, ㅃ	
잇소리	ㅅ	ㅆ, ㅈ	ㅊ
목구멍소리	ㅇ	ㆁ, ㆅ	

[중성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ㅇ, ㅁ, ㅂ	ㅇ, ㅁ, ㅂ, ㅅ	ㅇ, ㅁ, ㅂ, ㅅ, ㅈ, ㅊ

[종성자]

종성에는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 ①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본자와 가획자는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 ②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③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④ 모음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⑤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05년 수능]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보 기>

- ㄱ. 담장은 의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13년 4월 학평 B형 16번]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빙',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보 기>

- ㄱ. ㅁ술 > ㅁ을 > 마을
 ㄱ술 > ㄱ을 > 가을
- ㄴ. (날씨가) 덩(다) + -어: 더벼
- ㄷ. (색깔이) 곱(다) + -아: 곱와 > 곱와
 (고기를) 굽(다) + -어: 구벼 > 구워

- ① ㄱ으로 보아, 중세 국어 'ㅁ술'과 'ㄱ술'의 '△'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ㄱ으로 보아, '·'는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ㄴ으로 보아, '덩다'의 '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ㄷ으로 보아, '빙'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군.
- ⑤ ㄱ과 ㄷ으로 보아, '△'과 '빙'은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13년 6월 모평 B형 16번]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 4)

<보 기>

모음 ‘.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 1단계 변화에서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 ’가 ‘-’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①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사슴 > 사슴 | 꺾장 > 가장 |
| ③ 하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름 > 사람 | 다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13년 7월 학평 B형 16번]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5)

<보 기>

海東 六龍이 다투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1장>
 ㉡불휘 기픈 ㉢남곤 ㉣보르매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꺾마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불휘 : ‘불휘+∅(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를 나타냄)’의 형태소로 분석함.
 * 남곤 : ‘남+은’의 형태소로 분석함

[풀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내[飛]서서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과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제2장>

- ① ㉠의 조사 ‘이’는 ‘古聖(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군.
- ② ㉡에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군.
- ③ ㉡의 형태소 분석을 볼 때,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기’이 덧붙는 체언이 있군.
- ④ ㉢의 조사 ‘은’과 ㉤의 조사 ‘은’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을 나타내는군.
- ⑤ ㉣과 ㉥의 조사 ‘애’는 모두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군.

[13년 9월 모평 B형 16번] <보기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ㄹ

<보 기 1>

(가)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도외노니라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을워 뿔디면 골박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 기 2>

나랏 말씨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중~~중~~와로 서르 스몫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百~~백~~백~~姓~~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모~~춤~~내~~ 제 쓰들 시러 피디 몸흥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爲~~왕~~왕~~하야 어엿비 너
 겨 새로 스물어듸름 字~~字~~종~~종~~를 ㉡~~링~~3~~노~~니 사름마다 히며 ㉢~~수~~뵝~~니~~겨 날로 뿌메 便~~便~~안~~안~~크~~크~~ 하고져 흥
 ㉣~~쓰~~름~~미~~니라

- 『훈민정음』연해-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13년 10월 학평 B형 16번] <보기>의 ㉠ ~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乃내終중 ㄱ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ㅍ느니라. ㅇ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쓰면 입시울가비아
반소리 ㄷ의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골박쓰라 乃내終중 ㄱ 소리도 헛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 (1459)

[현대어 풀이]
나중 소리(종성)는 첫소리(초성)를 쓴다.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 : 첫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② ㉡ :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 ‘ㄷ’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 ⑤ ㉤ :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13년 수능 B형 16번]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8)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ㄷ’과 ‘ㄴ’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ㅃ’은 ‘ㅈ’과 ‘ㄷ’이, ‘ㅆ’은 ‘ㅈ’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말쑈·미중동國·꺄·에달·아文문字·쥁·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씨·이런전·츈·로어·린百·빅
 姓·성·이니르·고·저·홀·배이·셔·도·모·츈·내제·쁘·들시·러퍼·다·물·홀·노·미하·니·라·내·이·물·왕·왕·하·
 야·어·엇·비·너·겨·새·로·스·물·여·들·쥁·쥁·링·꺄·노·니·사·름·마·다·히·여·수·뵈·니·겨·날·로·뿌·메·便·뵈
 安한·크·하·고·저·홀·쑈·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뵈’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쁘·들’의 ‘ㅃ’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엇·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뿌·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14년 3월 학평 B형 16번] <보기>에서 ㉠ ~ ㉤에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옳은 것은 ? 9)

<보 기>

15세기 국어의 모음 중 ‘ㄹ, ㅍ, ㅌ, ㅊ’는 양성모음, ‘ㄴ, ㄷ, ㅈ’는 음성모음, ‘ㅣ’는 중성모음에 해당한다. 당시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모음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15세기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를’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가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사람 + ㉠	사람 +을	누 + ㉡	누구 + 를
천하 + ㉢	천하 +를	뜻 + ㉣	뜻 + 을

- | | | | | |
|---|---|---|---|---|
| | ㉠ | ㉡ | ㉢ | ㉣ |
| ① | 을 | 를 | 를 | 을 |
| ② | 을 | 를 | 을 | 를 |
| ③ | 을 | 을 | 를 | 를 |
| ④ | 을 | 를 | 를 | 을 |
| ⑤ | 를 | 을 | 을 | 를 |

[14년 4월 학평 B형 16번]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0)

<보 기>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ᆫ 사 卜年(복년)이 ㉠ᄒᆞᆫ 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ᄒᆞᆫ 사 더욱 ㉡ᄒᆞᆫ 드시리이다
 ㉢ᄒᆞᆫ 님금하 아쇼셔 ㉣ᄒᆞᆫ 낙수(낙수)에 山行(산행) 가이셔 하나빌 ㉤ᄒᆞᆫ 미드니잇가
 - 용비어천가 제125장 (세종 29년)

[현대어 풀이]
 천 세(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의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며, 아쇼셔. 낙수(落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② ㉡ : 선어말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④ ㉣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14년 6월 모평 B형 16번]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11)

<보 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이,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이, 의, 스'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 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이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 / 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 / 음성 모음	+	스

(예) 남 + 이 : **노미** 뜰 거스디 아니허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 + 의 : **거부빅**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 + 스 : **大王스** 말썸사 올커신마른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시지만)
 나무 + 스 : **나무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보 기 2>

- 父母ㅣ **아들** + ㉠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술위** + ㉡ 글워를 날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① | 이 | 스 |
| ② | 스 | 의 |
| ③ | 의 | 스 |
| ④ | 스 | 의 |
| ⑤ | 이 | 의 |

[14년 7월 학평 B형 16번]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2)

<보 기>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너’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ㄱ. 이 썩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나?)
 ㄴ. 이제 **엇더한고** (이제 어떠하나?)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ㄹ. 네 엇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종가’를 ‘종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한고’를 ‘한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14년 9월 모평 B형 16번]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3)

<보 기>

중세 국어 : 뒤에는 모진 도적 알피는 어드본 길헤 **업던** 번개를 하늘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 뒤에는 모진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븐** 어르물 하늘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얇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진’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늘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ㆍ’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븐’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ㅍ’이 쓰였군.

정답표

-
- 1) ③
 - 2) ③
 - 3) ②
 - 4) ②
 - 5) ⑤
 - 6) ⑤
 - 7) ②
 - 8) ③
 - 9) ①
 - 10) ⑤
 - 11) ①
 - 12) ④
 - 13) ②